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4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길이 (feet)	제작년도 (개봉일자)	소유자 (소재지)
낙동강	1건 (이미지 사운드 각 2권)	3,231.38	1952년 (1952.11.15.)	한국영상자료원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돈	1건 (이미지 15권, 사운드 14권)	22,647	1958년 (1958.3.9.)	
하녀	1건 (이미지 11권, 사운드 10권)	20,194.08	1960년 (1960.11.1.)	
성춘향	1건 (이미지 10권, 사운드 9권)	19,777	1961년 (1961.1.28.)	

2) 등록 예고 사유

- 전창근 감독의 「낙동강」은 한국전쟁기(1952년)에 제작되었고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 기록되어있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김소동 감독의 「돈」은 1958년 개봉한 영화로 순박한 농사꾼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1960년 개봉한 영화로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작품으로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다.

-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1961년 개봉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며,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3. 등록 예고일 : 2024. 12. 12.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 전 화 : (042)481-4912, 4913
- 팩 스 : (042)481-4927
-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